

영주에서 이루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 점을 잇다 독립출판작가 ‘손준수’ 를 만나다

스토리 독립출판작가 ‘손준수’
스토리발굴 전향진



0 | 번에 만난 젊은 문화 예술가는 독립출판작가 ‘손준수’ 님 입니다. 작가님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꾸준히 독립출판을 하고 계십니다. 기성 출판과 다른 독립출판만의 매력, 글을 쓰는 데 있어 영주가 주는 장점 등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Q1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님과 책이야기마당(북토크)을 통해 독립출판에 대해 알게 되었고 관심 가지게 된 독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주에서 식물연구원으로 지내면서 취미 겸 부업으로 5년째 독립출판을 해오고 있는 작가 ‘손준수’ 입니다.

Q2 저는 작가님을 영주 독립서점 ‘좋아서.’ 에서 북토크 때 처음 뵈었어요. 그때 책이 『자음과 모음과 마음들』 이었는데, 그 책에 들어간 작가님의 노력을 보고 독립출판의 매력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작가가 된다고 하면 공모전이나 대형출판사에 투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독립출판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스페인 유학을 서울에서 준비했거든요. 시간이 있으면 여기저기 구경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서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가 독립서점이었던 거예요. 책방지기님이 행복한 표정으로 이 책, 저 책 다양한 독립출판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때 그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세계는 어떤 곳일지 궁금증이 생겨서 다양한 독립출판을 사서 읽었어요. 기존의 책과 다른 작가의 개성이 듬뿍 담긴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나도 이런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당시 독립출판 수업이 있어서 가끔 들으면서 대부분 독학으로 독립출판 관련 내용을 익혔죠.

Q3 우연히 들어간 서점이 작가님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네요. 작가님이 작품 하시는 데 영향을 주는 독립출판 작가가 있다면요?

독립출판 작가 중에 ‘김종완’ 이라는 분이 계세요. 대체로 독립출판을 하더라도 인쇄는 업체에 맡기는데 이분은 제작도 본인이 직접 다 하세요. 종이에 출력해서 본드로 붙이는 과정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 그대로 완전한 독립출판을 하는 거죠. 모든 과정을 본인이 혼자서 말이에요.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가야말로 독립출판의 매력을 전하는 대표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의 글도 참 좋고요.

Q4 와 대단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을 거친 책이라니. 그런 분들에게 영감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총 5편의 책을 쓰셨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처음 책이 가장 애착이 많이 가지 않나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첫 책에 쏟은 애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은 두 번째 작품인 『자음과 모음과 마음들』입니다. 며칠 전이 한글날이었는데, 이 책은 외래어를 남용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순우리말을 알리고 싶은 마음과 외래어보다는 한글을 사용했으면 마음에서 만들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 애착이 가는 것도 있고, 이 책 덕분에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립출판을 할 수 있게 버틸 힘을 준 책입니다. 모든 책이 자식 같고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한 권을 뽑는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책을 꼽을 것 같아요.



Q5 저도 이 책을 보고 독립출판의 매력에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작가님이 책을 쓰고 만들며 들어간 여러 노력을 알기에, "와 이렇게도 책을 만드는데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이 참 좋습니다.

여러 시도를 많이 했고 그 시도들이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 모음 카드를 제작한 것도 그렇고, 처음으로 삽화 작가와 협업한 책이기도 하고요.

Q6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혹시 최근에 관심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독립출판사 '아웃 프레스' 에서 출간한 『스키터』라는 책입니다. 엄마의 갱년기를 마주한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갱년기였을 때,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도움을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어머니의 갱년기를 관찰, 공감, 기록하는 내용이라서 자식으로서 조금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Q7 어머니의 갱년기도 글의 소재가 될 수 있네요.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읽어보아야겠네요. 영주에서 글을 쓰시는 것은 어떠세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무엇을 하든 최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 영주의 첫 독립출판 작가, 영주의 첫 독립출판 수업. 소도시다 보니 이런 일들이 최초가 될 수 있고 주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문화 행사를 추진하기가 아주 조금 수월해요. 그리고 글 쓰는 데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이 없고 방해 요소가 없어요. 유유자적한 마음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Q8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씁쓸하지만, 또한 편으로는 엄청난 장점이 맞네요. 글을 쓰기 최적의 장소는 영주! 하하. 그럼, 영주가 가진 단점은요?

대 도시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대도시는 책 제작, 기획, 행사, 동네서점과 관련하여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하지만 영주는 그러한 지원이 조금 부족한데요, 어찌 보면 그만큼 관심 있는 사람이 적다는 말도 될 수 있겠네요. 독립출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죠. 영주에 독립서점이 있는지, 독립출판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Q9 맞아요. 독립출판뿐만 아니라, 책에 관심도 크게 없는 것 같고 소수에 집중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독립출판 수업을 하기 전에, 영주 지역 카페를 돌면서 양해를 구한 후에 홍보 포스터를 붙였어요. 롯데시네마까지 가서 부탁드리기도 했고요. 큰 노력을 기울여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북토크를 해도 관심 있는 분들보다는 지인들이 모여요. 아직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변확대가 조금 안 되어 있구나 싶어요.

Q10 아마 다른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하시는 분들도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가까운 지역들에 비해 영주에 대형서점을 제외한 특색을 가진 서점이 3개나 된다는 점에서 장래가 밝아요. 독립서점 좋아서, 그림책방 '북그북그'가 이미 있고, 또 시내에 새로운 동네 책방인 '책방하리'가 개점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Q11 그러게요. 다들 책방을 접는 시기에 이 작은 소도시에서 동네 책방이 세 곳이나 있다는 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역에서 교류하는 작가가 있으신가요?

영주에서 유일한 독립출판 작가였지만 얼마 전에 제 독립출판 수업을 수강하신 분들께서 책을 출간하셨기 때문에 동료 작가가 10명 이상 생겼어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Q12 이런 수업이 앞으로도 꼭 계속되면 좋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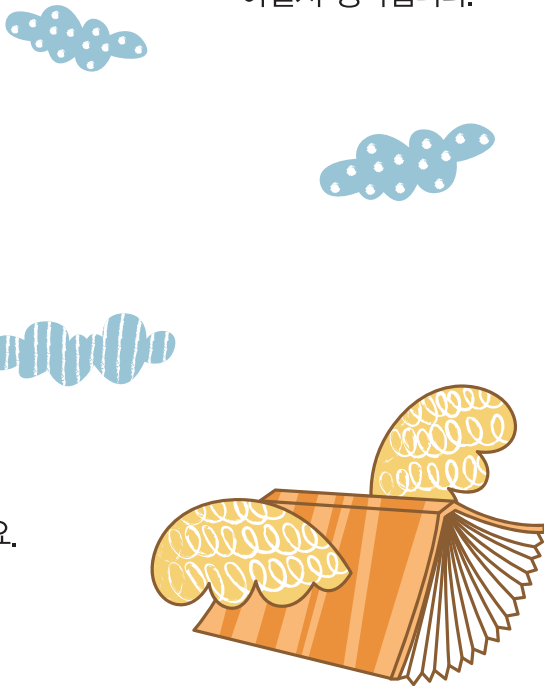
네, 영주문화관광재단의 덕이 크고, 장소 제공 등에 지원을 해주신 '좋아서.'의 손수진 대표님의 공도 크고요.

Q13 작가로서 삶의 만족도는 어때요?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 있는데, 제가 딱 그래요.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면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 슬프다고 한단데 저는 이제까지 하고 싶은 걸 대부분 다 하며 살았어요. 춤을 배우고 싶으면 춤을 배웠고, 앨범도 제작했고, 뮤직비디오에 나오고 싶어서 출연하기도 했고, 책도 썼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후회가 없어요. 현재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가족도 건강하고, 가끔은 조금 무리해서 비싸지만, 맛있는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틈틈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하고. 이런 소소한 것들을 누릴 수 있기에 정말 기쁜 것 같아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아무튼 작가든 개인이든 저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Q14 멋지네요. 늘 도전하고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사는 삶이요. 그래서 그런가, 작가님 안에 젊지만, 여유와 자유라는 것이 느껴져요.

아마도 그건 제가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하는 경험을 통해 사람의 인생에서 나이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양한 삶을 마주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 안의 걱정, 조급함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그런 경험을 통해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신 게 아닐지 생각합니다.



Q15 그런가 봅니다. 작가님만의 너그러운 포용과 허용이 느껴져요. 그 부분이 대담하고도 멋있게 다가옵니다. 작가님만의 글 쓰는 루틴이 있나요?

매일 꾸준히 써야 한다고 수강생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첫 책은 그렇게 매일 조금씩 글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번부터 쓸 때는 어떤 주제의 책을 쓸지 고민하고 몰두해서 2~3주, 혹은 한 달 정도 집중해서 글을 씁니다. 주제를 정하는 게 어렵지, 정하면 몰입해서 금방 써요. 생각해 보면 글감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몰입하며 쓸 수 있는 것도 이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요. 제가 만든 모든 책의 소재는 제 경험의 산물이에요. 처음 글쓰기에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거창하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하루의 시간을 잘게 쪼개, 틈틈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죠. 가령,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때 글을 쓰는 것처럼요. 우선 글 쓰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Q16 자투리 시간에도 글을 쓰는 작가님 멋지네요. 저는 아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물론 그러는 시간도 있죠. 하하.

Q17 작가를 꿈꾸는 이들이 많아요. 이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요?

작가란 단순히 말하면 그냥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작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글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출판 수업도 많고, 글 쓰는 방법을 정리한 책도 찾아보기 쉽습니다. 글을 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글을 쓰고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워 말고 지금 당장 도전해 보세요.

Q18 올해 남은 일정과 계획은요?

12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도서전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수강생분들과 함께 나가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Q19 작가님이 이루고픈 꿈과 바람이 있다면요?

'유퀴즈'에 나가고 싶어요. 제가 책 관련 행사에 나가면 타자기로 즉석 시를 만들어 독자분들께 선물해 드리는데, 지금까지 약 4,000명의 손님에게 만들어드렸답니다. 그런 독특한 작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독립출판 축제를 많이 하는데 영주에서도 풍기 인삼, 사과, 선비 축제처럼 책을 주제로 한 행사를 열고 싶어요. 선비는 오래도록 책을 벗 삼아 온 존재인데, 충분히 책과 선비의 이미지도 연결되고요.

Q20 작가님, 꼭 '유퀴즈' 에도 나가시고, 영주에서도 도서전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요?

영주에 문화예술 분야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과 협력해서 영주가 문화적으로 풍성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T&G 상상마당이 부산, 홍대, 논산, 춘천, 대치에 있는 것 아세요? 'KT&G' 공장은 영주에 딱하니 있는데 왜 상상마당은 없을까요? 영주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작가님의 마음 안에는 큰 자유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여유는 다양한 경험에서 축적된 삶의 방식에서 온 지혜였습니다. 강인하고 열정적이지만 부드럽고 섬세한 감각을 가진 손준수 작가님 앞으로는 작가님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주에서 이루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열 번째 우리가 잇고 싶은 점은 독립출판 작가 '손준수' 님의 이야기였습니다.